■ 광주·전남 인터넷 중독 분석해보니…

잠꼬대도 게임용어로 초·중학생이 더 심각

상담자 중 77% 차지…게임중독 많아

10명 중 7명이 치료 필요한 '위험군'

#사례 1=광주 A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14)군은 1년 전만해도 인터넷 게임 용어로 잠꼬대를 할 정도로 인터넷 중독증세가 심했다.

김군은 당시 '스타크레프트'와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 매일 3~4시간 이상씩 빠져 지냈다. 상위권인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인터넷 선을 끊고 집안의 컴퓨터를 내다버렸다. 그러나 김군의 중독증세는 치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군은 가출을 일삼았고 PC방을 전전하며 게임에 몰두했다. 부모에게 대드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 김군을 다그치다 화만 더 키운 꼴이됐다. 김군은 부모의 설득을 받아들여 지난 2월부터 인터넷중독 상담센터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지만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사례 2=광주에 사는 40대 후반의 박모씨는 인터넷 고스톱과 포커 등으로 1억원 가량을 탕진했다.

물류사업을 하던 박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께. 고혈압으로 술·담배 등을 끊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터넷 도박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처음에는 수십만원을 따기도 했다. 그러나 핸드폰 결제로 조금씩 늘어가던 도박빚은 금세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다. 가족에게 1천만~2천만원씩 받아내 쏟아부은 돈만 1억여원. 가족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김씨의 중독증세는 점점 더 깊어졌다. 박씨는 지난 6월 뒤늦게 상담센터를 찾았지만 지금도 인터넷 게임을 하는 상상을 자주 한다고 털어놓았다.

전남체신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올 10월까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 상담한 건수는 1천41건. 지난해 1년 전체 상담건수보다 58.4%(608건)나 늘었다.

금년 상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여부를 조사하는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3시간 정도인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이 696건으로 66.9%를 차지했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4시간을 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고위험사용자군'도 14건(1.34%)이나 됐다.

인터넷 중독으로 상담을 의뢰한 10명 중 7명은 치료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된 것이다.

상담유형으로는 게임중독이 515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교우·가족관계 등으로 인터넷에 몰두하는 경우가 313건(30.0%) ▲심리검사 168건(16.1%) ▲부작용 14건(1.3%) ▲도박 7건(0.7%)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중학생이 47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328건(31.5%) ▲일반인 134건(12.9%) ▲고등학생 79건(7.6%)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학업부담이 적은 초·중학생들이 인터넷중독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양경숙(여·39) 상담실장은 "인터넷중독을 단순히 훈계나 호통으로 고쳐보려고 하다간 자칫 증세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가족과 함께 방문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연령대가 낮은 초·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25일 새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이스턴 브라이트호의 선원 묘테이(29·미얀마)씨가 해경에 의해 구조돼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 선착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화물선 침몰 14명 실종

어제 새벽, 1명은 구조 … 질산액 2천t 등 실려

질산액을 실은 화학약품 운반선이 여수 해상에서 침몰하고 선원 15명 중 14명이 실종됐다.

25일 새벽 4시19분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쪽 13㎞ 해상에서 인천 선적 1천300t급 화학약품 운반선 이스턴 브라이트(EASTERN BRIGHT·선장 정춘영·54)호가 조난신호를 보낸 직후 교신이 두절됐다.

여수해경 등은 이 선박이 침몰했을 것으로 보고 경비함 9척과 헬기 등을 급파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 등 수색팀은 이날 오전 사고 인근 해역에서 미얀마인 선원 묘테이(29·조기장)씨를 구조했으나 나머지 선원 14명(한국인 12명, 미얀마인 2명)과 사고 선박은 이날 밤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또 날이 어두워진데다 3~4m의 높은 파도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된 선원 묘테이씨는 사고 해역에서 가까운 고흥군 고흥읍 모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묘테이씨는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배가 갑자기 한 쪽으로 기울더니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은 부산지역 해운물류회사인 NHL개발(주) 소속 화약약품 운반선으로 2천t의 질산을 싣고 전날 밤 11시30분께 광양항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인터넷 중독→병원 치료→성적 '뚝'

고교생 투신 자살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께 영광군 영광읍 K아파트 1층 출입구 지붕에 영광 모 고교 2학년 김모(17·영광군 영광읍)군이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 주민 김모(여·53)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일을 보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 창문 밖을 내려다 보니 김군이 쓰러져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군이 중학생 때인 2~3년 전부터 게임이나 인터넷서핑에 몰두하는 등 심한 인터넷 중독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인터넷 중독이 김군의 사인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김군이 최근 학업성적이 떨어지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해양 오염 막아라" 여수 비상

해경, 산성도 조사…"기름띠 발견" 신고도

25일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턴 브라이트호에 다량의 공업용 질산액과 벙커C유 등 연료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들이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있다.

사고 선박에는 약 30% 농도의 질산액 2천t과 벙커C유·경유 120t이 실려있었으며 질산액은 강한 산성으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바다에 유출될 경우 해양 동식물이 집단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 등은 사고 해역에서 바닷물 산성도(pH)를 측정하는 등 질산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 연료로 추정되는 폭 50m, 길이 3㎞의 기름띠가 발견됐다는 어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선 등 24척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질산은 물에 잘 녹고 공기 중에서 쉽게 분해되는 특성을 가진 데다 질산이 담긴 탱크에는 외부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어 관계 기관들은 오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금품 훔친 예비목사 성탄절에 철창행

쌍나팔

○…예비 목사인 신학대 휴학생이 자신이 다니던 대학 기숙사 등에서 금품을 훔쳤다가 성탄절인 25일 철창행.

○…광주 남부경찰은 25일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친구들의 물건을 훔친 광주 모 신학대 휴학생 이모(26·영광군 염산면)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다니던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박모(20)씨의 신용카드와 디지털카메라를 훔치는 등 대학 기숙사와 친구 자취방을 돌며 3차례에 걸쳐 2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못된 짓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담당 경찰은 "앞으로 목사가 될 학생이 선행은 못 베풀지언정 나쁜 짓을 하고 다녀서야 되겠느냐"며 쓴소리.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